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황인홍 무주군수, 도시재생 정책포럼서 노후 주거지 중장기 계획 구상 등 밝혀

황인홍 무주군수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적용하는 등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장기적 재생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무주형 도시재생 사업 구상을 밝혔다.

27일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공유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 공론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포럼(산업박람회)에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도시재생협력포럼 송경용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황 군수는 “앞으로의 정책에 소도시에서 도시재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도시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민의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도시가 활력을 찾고 지역 스스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재정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수리에 대한 번거로움과 자부담 비용지출의 어려움 등으로 집수리를 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군 자체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체 지원비 지원 및 기타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특히 “그간 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들을 설명하면



황인홍 무주군수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적용하는 등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장기적 재생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무주형 도시재생 사업 구상을 밝혔다.

서 건강도시 무주의 실현을 위해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노후 주거지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끄럼방지 타일공사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이동이 편하도록 문턱 제거공사 등 거주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집수리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기초광역 지자체, 주민공동체와 자생시민단체의 기본 축으로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도시재생 참여와 지원방안 수립, 광역의 회 중심으로 기초와 중앙을 연결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정책 연계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시재생협력포럼 안정희 이사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회 중심 도시재생 정책연구와 조례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보교류와 소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협력포럼 국회정책고문단의 필요성과 각 정당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해 국가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드론 실증도시 구현 박차

### 상전면 체련공원 부지,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장 지정

진안군이 드론 실증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27일 상전면 체련공원 부지가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실기시험장 지정으로 동부산악권 수요자들의 시간적 어려움과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공모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했다. 진안군은 상전면 체련공원부지를 공모 사업 예정지로서 지정하고, 각종 실기시험장 조건을 갖춰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 10월 13일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27일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시험에 대한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전북권에서는 전주시에만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부산악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은 전주, 광주, 청양 등 타 지역으로 응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공모 실기시험장 운영은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장이 운영하게 되면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진안군은 그동안 드론 관련 사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올해 5월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됐으며, 이어 실기시험장 유치까지 성공하게 된 것이다. 군은 이밖에 드론으로 활용한 디지털농업 실증 기술 등을 추진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각종 산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소방, 항공, 영상촬영, 환경 및 산림단속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에 드론 실기시험장 유치로 무주, 장수, 임실 등 동부산악권 지대 자격취득 수요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실증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무주군이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신청 받는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읍면 유흥 단란주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이 대상이다.

8월 20일부터 3단계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무풍면만 직접판매홍보관과

목욕탕, 수영장이 추가된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다음달 3일부터 민원봉사과 2층, 및 읍면 산업팀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 민원봉사과 2층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부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열린군수실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군수실·이장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등 3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군민들이 건의한 72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린군수실과 이장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건

설 394건, 소득 52건, 보건·복지 50건, 환경 49건, 문화체육·관광 44건, 상하수도 31건, 기타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중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과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규모 숙원사업 271건(37.5%)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으며, 농로 확장·신설, 배수로·옹벽·주차장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253건(35%)은 효율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22년 분예산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오늘 개막

### 3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진행

장영수 장수군수와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 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장수군의 명품 농특산물인 사과, 한우 등을 유명 유튜브버와 함께 소개하는 라이브방송과 장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보이스 라디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전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랜선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방송과 개막식이 펼쳐질 메인무대와 전시장, 드라이브스루 부스 등을 점검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 및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이뤄졌다.

장영수 군수는 “2년만에 개최하게 된 축제인 만큼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축제를 준비했으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랜선으로 꼭 축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28일 10시 삼마을운동의 한우머방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개막식, 장수가야문화제 등을 장수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을지태극연습 실시

진안군이 27일~29일까지 3일간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밀집·밀접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비대면 위주의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하고 종합상황실 근무자 위주로 시행한다. 전시 종합상황실은 6개반으로 편성하고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계획 접수와 처리 등 통합상황 전반을 조치하게 된다.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지만 국지도발 대응연습, 전시종합상황실 및 전시참설기구 설치·운영, 도상연습, 해킹메일 대응 훈련 등 비상 시 기본임무를 익히고, 새로운 방식의 위협에 대비한 연습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한국고유 침엽수종 보존 앞장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개체수 및 분포면적 감소 등 쇠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현지의보존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무주군의 산림환경에 적합한 수종인 구상나무에 대해서 현지의보존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구·협력하여 구상나무 식재 및 생육에 적합한 민주시산 일원 1,100m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2년에 걸쳐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에 위한 구상나무 현지의보존원 약 1.8km를 조성하여 1,600여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자 한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